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개발*

김 남 연

양 난 미†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문헌고찰, 부부 면담자료, 부부관련 척도 등을 분석하여 104문항의 기초예비 문항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예비문항에 대해 심리학 교수,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학 박사, 국어교사 등 전문가들이 4차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예비척도 59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비척도에 대해 결혼한 중년기 남녀 223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평등/가치관 요인 10개 문항과 의사소통/친밀감 요인 10개 문항의 2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최종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축형 행복척도,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 갈등대처 척도와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건강한 부부관계, 의사소통, 친밀감, 평등, 가치관

* 본 연구는 김남연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양난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여성연구소 부소장,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E-mail: behelper@gnu.ac.kr

우리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중에서도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독특한 인연에 의해 맺어지는 것으로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가장 깊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다.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환상적인 그림으로 결혼생활을 기대하지만, 실제 결혼생활에서 부딪치는 상황들은 서로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은 부부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큰 좌절감을 맛보게 하기도 한다.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최근 이혼율을 통해 볼 수 있는데, 2008년도 OECD 국가들의 이혼율 순위에서 한국은 10위권 이내의 높은 이혼율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 이 중에서도 중년기 이후의 부부관계의 위기가 특히 심각한데,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이혼율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결혼기간에 따른 이혼율에 있어서 결혼한 지 5~9년 만의 이혼 비율은 19.0%, 10~14년은 15.2%, 15~19년은 14.2%, 20년 이상은 24.8%로 나타나(통계청 2012. 04. 19)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경제매거진, 2012. 05. 02).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중년기에 대한 연구들에서 중년기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긴 하나 Erikson (1956; 김명자, 1998 재인용)과 Levinson 등 (1978; 김명자, 1998 재인용)은 40-60세가 중년기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이 29.1세, 남성이 31.9세이고,

평균 사망연령은 여성이 84.1세, 남성이 77.2세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대략 30세 전후로 시작되어 40년 이상 유지됨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2. 04. 19). 따라서 중년기는 결혼생활에서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년기 부부들은 부부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중년기 부부들은 오랜 시간 같이 살아왔기에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기의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상대의 새로운 면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변화에 대해 상호인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정현숙, 2001). 또한 중년기 부부들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게 되면 부모로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에 몰두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해방감을 맛보고 부부는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중년기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과업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재조정하는데 있다. Newman과 Newman(2006)은 중년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부부는 각자와 부부관계 성장에 헌신하여야 하고 둘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개발하고 셋째, 고통과 갈등해결을 위해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자기변혁의 각오와 상대방에 대한 요구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며 부부중심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이잠숙, 2010).

본 연구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살피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부부관계는 가족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므로 가족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역기능적 결혼관계는 부부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Robles & Kiecolt-Glaser, 2003) 자녀들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Cummings & Davies, 2002; 김경진, 2011 재인용). 오늘날 청소년 문제나 노인 문제는 가족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비화된다(김성봉, 2012). 부부관계의 건강은 가족 건강의 시작이 되고 가족 건강은 사회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구조 안에서의 부부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부부관계의 재평가와 재정립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부부관계에서 건강의 기준과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가족 내 인간관계의 중심이었던 부모와 자녀의 ‘수직적 관계’는 오늘날 가족 내의 정서적 결속이나 친밀감 등을 기초로 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김홍숙, 2006)을 주지해야 한다. 셋째, 경쟁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가정생활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부관계의 친밀감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직장동료와 친구 같은 사회적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도 직장 내에서의 상대평가나 경쟁적 분위기로 인해 이들 간의 경쟁과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부부갈등이 심각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적인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송하길, 2004).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완화되고 결혼에 대한 대안이 많아짐에 따라 이혼에 대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건강

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우리문화에서 본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는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불행한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김경진, 2011). 이와 같은 변화는 건강한 부부관계와 바람직한 결혼관계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과 기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와 노인부양, 친족관계 등 결혼생활의 전반적 주제와 가족관계를 다룬 연구 등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상희(1988)의 연구에서는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 사회봉사단체 참여도, 남편의 빠른 퇴근 시간이 중년주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명숙(1986)의 연구에서는 부부생활과 대화, 남편의 성격, 성생활, 가정경제 운영, 여가생활, 친족과의 관계, 중년기 부인의 자각증상, 외로움, 갈등 등을 통하여 전반적 부부생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부부관계를 다룬다는 것보다는 가족관계나 가정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였고 연구대상자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주로 아내, 혹은 남편으로 한쪽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중년기 부부에 대한 연구들은 중년기 위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다수였다(김영자, 1999; 박형석, 2000; 오윤선, 1997; 이은아, 2006).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중년기 부부갈등(이희백, 2009; 정진오, 변상해 2009; 홍정의, 2008), 의사소통과 관계 증진(신외숙,

2002; 이화자, 최연실, 2003), 부부 교육과 집단 프로그램(백승순, 2001; 진선영, 2004)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주로 중년기 부부의 위기와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으로 건강한 부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드물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직접 관찰하고 면담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특징을 알아 내려는 시도를 하였다(Gottman, 1994; 김경진, 2011). Gottman(1994)은 ‘무엇이 결혼을 실패하게 하는가’ 보다 ‘무엇이 결혼을 성공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한 부부들을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이혼을 예방하고 부부 관계를 증진시키는 핵심요인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기보다 긍정적 감정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홍순진, 2006 재인용). 유사하게 김경진(2011)은 건강한 중년기 부부들을 심층 면담하고 이를 분석하여 중년기 건강한 부부 관계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들을 밝혔으며 건강한 부부 관계의 핵심개념을 ‘동반자관계’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 ‘함께’라는 의미로 평등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부부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부부 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의, 관련된 요인을 측정하는 기존 척도(권정혜, 채규만, 1998; 김혜신, 2003; 마양호, 2008; 송정아, 1995; 이경성, 한덕웅, 2003; 이희백, 2009; 장병옥, 1997; 최규련, 1994; Barlett, 1991; Bienvenu, 1970; Christensen & Sullway, 1984;

Gottman, 1999; Schllein, 1971)들은 건강한 부부 관계의 관련 변인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건강한 부부 관계를 다루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첫째,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고자 하는 척도로서는 갈등관리를 중심으로 한 척도(최규련, 1994; Christensen & Sullway, 1984)와 결혼불만족을 보려한 척도들이 있었는데(권정혜, 채규만, 1998; 이경성, 한덕웅, 2003; Gottman, 1999), 이들이 측정하는 역기능적인 관계의 감소라는 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부부 관계를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는 면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주관적 평가를 통하여 측정 한 척도(송정아, 1995; 이경성, 한덕웅, 2003; Schllein, 1971)가 있었다. 상호작용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와 상관이 있는 반응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심’, ‘함께’, ‘서로’, ‘공통’, ‘관계’ 등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결혼생활에서 개인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평가들은 부부가 공유하거나 주고받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진다. 셋째, 결혼 만족과 행복 등을 측정하는 척도(권정혜, 채규만, 1998)는 결혼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나타 내기는 하나 건강한 부부 관계의 원인이나 결과로 볼 수 있는 정도이고 이 또한 건강한 부부 관계 그 자체로는 보기 어려운 척도로 생각 된다. 이는 결혼만족이나 행복감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루는 과정이나 그 이전 혹은 결과에서 느끼는 평가로 보기 때문이다(Moore 2004). 그리고 기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척도가 아닌 아내나 남편 중 한 쪽을 대상으로 한 척도(이희백, 2009)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척도(Bienvenu, 1970), 정서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한 척도(Barlett, 1991), 부부의 역할 혹은 부

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척도(김혜신, 2003; 장병옥, 1997), 척도문항은 만들어져 있지만 타당화과정이 없는 척도(마양호, 2008) 등 결혼관계에 있어서 일부 주제만 단편적으로 다룬 척도들이 있어 이들로써 건강한 부부관계를 측정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자 한다. 먼저 부부관계의 부적응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관계의 역기능 혹은 부부갈등과 관련된 요인(김수현, 1985; 박옥임, 1996; 이희백, 2009; 최은희, 1993; 홍정의, 2008)을 밝히는 연구와 이혼 및 관련 변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부관계의 특징이나 결혼의 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구혜경, 2008; 김기환, 1967; 김미숙, 1990; 옥선화, 2004)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건강한 부부관계를 역기능의 특징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하여 건강한 관계로 정의하였지만(Rauer, 2006) 긍정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부부관계 그 자체의 속성을 직접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긍정적인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국외의 연구 또한 주로 관계만족이나 질에 대한 예측에 초점을 두거나(Gottman, 1988; Smith, Snyder, Trull, & Monsma, 1998) 갈등이 없는 부부들의 관계의 특성이나 질에 초점을 맞추어(Rosen-Grandon, Myers & Hattie, 2004; Schneewind & Gehard, 2002; 김경진, 2011 재인용) 진행되어 왔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수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건강한 관계로 재정립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존재하지만 기존 다수의 연구들은 부부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켜서 긍정적인 측면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해온 것이 사실이다(김순옥,

2001; 김주혜, 1994; 이창숙, 유영주, 1998; 최윤화, 2000). 둘째, 결혼만족이나 행복감의 요소보다는 건강한 부부관계 자체의 속성을 다루고자 한다. 결혼만족을 측정한다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 그 자체의 측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결혼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나타 내기는 하나 건강한 부부관계의 과정이나 결과 혹은 하위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건강한 결혼 개념에 대해 연구한 Moore 등(2004)은 결혼만족이나 행복감을 건강한 부부관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정의하고 건강한 관계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이나 행복감보다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속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셋째,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배우자 한편만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측정되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결혼만족도, 결혼행복도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부부관계의 특징이나 결혼의 질을 파악하는 연구(오종희, 2008; 이윤로, 유시순, 2004; 최영민, 2010)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이다(Spanier & Lewis, 1980; 김경진, 2011 재인용). 주관적인 평가도 부부관계 개념정립에 도움을 주지만 부부관계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경험들에 초점을 두어 주관성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건강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보다 실질적 요인들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강한 중년기 부부관계를 가진 부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기능하는지를 알아보는 한편 그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첫째, 부부 관계에 있어서 건강성을 다루는 이론을 발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 부부상담 과정에서 건강하고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여 상담과정에서 문제를 가진 부부와 상담자의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셋째,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발된 척도를 통해 추후 부부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부부 교육 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비문항 개발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 나타난 중년의 건강한 부부관계의 개념과 그 구성개념을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긍정적인 측면, 상호작용적 측면에 맞도록 정리하였고, 기존 부부관련 척도 및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문항들을 추출한 후 이를 각각 하위요인별로 유목화하였다. 유목화한 결과와 중년의 건강한 부부 구성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기초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와 부부관련 척도를 토대로 747개의 문항을 수집하였고 이들 중 중복되거나 비슷한 문항, 구성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문항, 중년기 부부와 관련이 적은 문항을 삭제하여 104개의 기초예비문항을 추출하였다. 1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심리학 교수 3명, 사회복지학 교수 1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항 53개를 수정하고 2개 문항을 추가하여 106문항을 작성하였다. 2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심리학 교수 1명, 심리학 박사과정 2명, 국어교사 1명에게 의뢰하여 44문항을 삭제하고 7문항을 수정하였으며 1문항을 추가하여 63문항을 도출하였다. 3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2차 내용타당도를 거친 63문항을 건강한 부부 3쌍에게 Lynn에 의한 C.V.I.(Lynn, 1986; 최은석, 2004 재인용)를 이용한 문항의 이해도와 적절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4차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3차 내용타당도를 거친 63문항을 심리학 교수 2인, 심리학 박사 1인에게 의뢰하여 건강한 부부 관계 척도 문항으로서의 적절성과 하위요인과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59문항을 확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중년의 건강한 부부관계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성개념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표된 건강한 부부관계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이론들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언급된 개념은 의사소통, 갈등관리, 동반자적 관계, 긍정적 관심, 가치관, 신뢰, 애정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7개 개념을 정서적·인지적·행동적·영적인 관점으로 분류하여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정서적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심과 신뢰, 애정으로 분류하였고, 둘째, 인지적 관점으로는 갈등관리와 의사소통을 셋째, 행동적 관점으로 동반자적 관계로 분류하여 하위개념으로 평등성과 부부역할, 자녀양육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신앙과 가치관을 들어 건강한 부부관계에서의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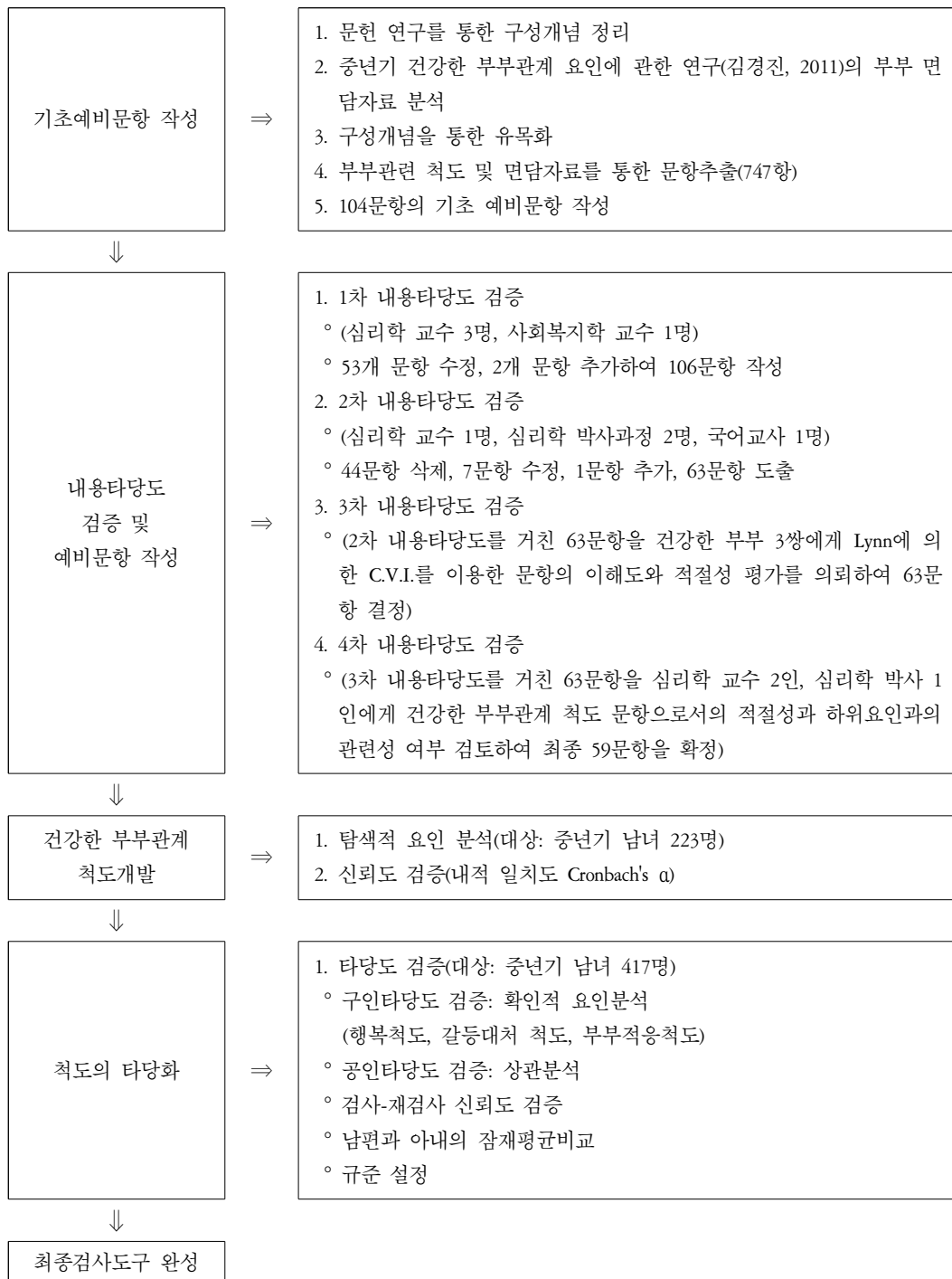


그림 1. 타당화 과정 도식

표 1. 대표적인 이론에서 제시한 건강한 부부관계의 구성개념

| | Olson | Long & Young | Gottman | Markman | Moore 등 | 김경진 | 빈도 |
|--------------------------------|-------|--------------|---------|---------|---------|-----|----|
| 결혼생활만족도 | 0 | | | | 0 | | 2 |
| 성격문제 | 0 | | | | | | 1 |
| 의사소통 | 0 | 0 | 0 | 0 | 0 | 0 | 6 |
| 갈등관리 | 0 | 0 | 0 | | 0 | 0 | 5 |
| 재정관리 | 0 | | | | | | 1 |
| 여가활동 | 0 | | | | 0 | 0 | 3 |
| 가족과 친구 | 0 | | | | | | 1 |
| 동반자적 관계 (역할, 가사, 자녀, 평등성) | 0 | 0 | 0 | 0 | | 0 | 5 |
| 가족친밀성과 가족유연성 | 0 | | | | | | 1 |
| 긍정적 관심 (이해, 수용, 존중, 배려, 지지) | | 0 | 0 | 0 | 0 | 0 | 5 |
| 가치관 (신앙, 신념, 사명감, 의미) | 0 | 0 | 0 | | | 0 | 4 |
| 신뢰 | | 0 | 0 | 0 | | 0 | 4 |
| 헌신 | | | | 0 | 0 | 0 | 3 |
| 애정(성, 친밀감) | 0 | | 0 | 0 | 0 | 0 | 5 |
| 신체적 안전성 | | | | 0 | 0 | | 2 |
| 외도 | | | | | 0 | | 1 |

- 주. 1) Olson(2011): 결혼생활만족도, 성격문제,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관리, 여가활동, 성관계, 자녀와 양육, 가족과 친구, 역할관계, 종교적 신앙, 가족친밀성과 가족유연성
- 2) Markman(2012): 신체적 안전성, 정서적 안전성(수용, 이해, 사랑, 지지, 의사표현의 자유, 친밀감), 헌신의 안전성(미래를 위한 헌신, 신뢰), 공동체 안전성: 관계의 안전성, 육아서비스,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 3) Long & Young(2003): 절대적 진실보다 상대적 진실(차이인정, 이해, 수용), 배우자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존중, 신뢰), 차이는 해결될 것이라는 신념(헌신, 갈등관리), 보다 넓은 차원에서 보는 믿음(믿음과 사명, 지향성), 건강한 행동의 실행(책임, 목표의 제휴, 격려, 개방적 의사소통, 긍정적 관심, 공평성)
- 4) Gottman(1977): 애정지도, 배려와 존중, 진심, 의견존중, 문제해결(직장에서 스트레스, 고부간 갈등, 성생활, 가사분담, 부모역할), 배우자의 꿈 이해, 인생의 의미
- 5) Moore 등(2004): 헌신, 의사소통, 갈등관리, 가정폭력, 외도, 상호작용과 함께 함, 친밀감과 정서적 지지, 자녀에 대한 헌신, 결혼의 지속기간과 법적 상태
- 6) 김경진(2011): 신앙, 가치관 공유, 신뢰, 헌신, 평등성, 애정, 긍정적 관심, 여가생활, 의사소통, 갈등관리

연구 1. 탐색적 요인분석

방 법

연구대상

경남지방의 총 5개 지역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0-60세의 남녀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4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42부 중 모든 질문에 특정 번호로 응답하였거나 표기누락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한 22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측정도구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예비척도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선행연구에서의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기초예비문항을 작성한 후 4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중년기 결혼한 남녀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보고된 응답지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부부관계임을 의미한다. 본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정서적 요인 20 문항, 인지적 요인 15문항, 행동적 요인 13문항, 영적 요인 11문항으로 총 5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비척도 59문항의 *Cronbach's α*는 .98이었다.

구와 문헌고찰, 선행연구에서의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기초예비문항을 작성한 후 4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중년기 결혼한 남녀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보고된 응답지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부부관계임을 의미한다. 본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정서적 요인 20 문항, 인지적 요인 15문항, 행동적 요인 13문항, 영적 요인 11문항으로 총 5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비척도 59문항의 *Cronbach's α*는 .98이었다.

분석방법

예비척도 문항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 문항 간 상관, 문항-총점 간 상관 등을 검토하여 문항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표 2.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N=223)

| | 구분 | 명 | % | 구분 | 명 | % | 구분 | 명 | % | 구분 | 명 | % | | | |
|----|-------|-----|------|--------|-----|------|---------|--------|------|---------|---------|------|------|----|------|
| 성별 | 남 | 100 | 44.8 | 사무직 | 114 | 51.1 | 중매 | 55 | 24.7 | 가톨릭 | 28 | 12.6 | | | |
| | 여 | 123 | 55.2 | 기술직 | 25 | 11.2 | 연애 | 136 | 61.0 | 개신교 | 36 | 16.1 | | | |
| 연령 | 40대 | 139 | 62.3 | 직업 | 생산직 | 6 | 2.7 | 결혼 형태 | 절충 | 31 | 13.9 | 종교 | 불교 | 90 | 40.4 |
| | 50대 | 79 | 35.4 | | 판매직 | 8 | 3.6 | | 기타 | 1 | 0.4 | | 이슬람 | 1 | 0.4 |
| | 60대 | 5 | 2.2 | 교사(교수) | 19 | 8.5 | 무응답 | 0 | 0.0 | 기타 | 61 | 27.4 | | | |
| | 무응답 | 0 | 0.0 | 기타 | 45 | 20.2 | 10년 미만 | 25 | 11.2 | 무응답 | 7 | 3.1 | | | |
| 학력 | 고졸 | 41 | 18.4 | 무응답 | 6 | 2.7 | 결혼 연수 | 10년 이상 | 104 | 46.6 | 2천만원 미만 | 10 | 4.5 | | |
| | 전문대졸 | 28 | 12.6 | 1명 | 34 | 15.2 | | 20년 이하 | | | 2천만원 이상 | 55 | 24.7 | | |
| | 대학교졸 | 99 | 44.4 | 2명 | 150 | 67.3 | 가구당 연수입 | 21년 이상 | 77 | 34.5 | 4천만원 미만 | | | | |
| | 대학교이상 | 55 | 24.7 | 3명 | 33 | 14.8 | | 30년 이하 | | | 4천만원 이상 | 90 | 40.4 | | |
| | 무응답 | 0 | 0.0 | 없음 | 6 | 2.7 | 31명 이상 | 17 | 7.6 | 6천만원 미만 | | | | | |
| | 초혼 | 221 | 99.1 | 무응답 | 0 | 0.0 | 무응답 | 0 | 0.0 | 6천만원 이상 | 65 | 29.1 | | | |
| | 재혼 | 2 | 0.9 | | | | | | 무응답 | 3 | 1.3 | | | | |
| | 무응답 | 0 | 0.0 | | | | | | | | | | | | |

35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최종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주축요인 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각회전의 방법 중 사용의 편리성과 자료처리의 반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Promax 방법(Kappa=4)을 사용하여 문항의 요인과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결 과

문항분석

먼저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 문항별 응답 평균값의 경우 최소값이 3.03, 최대값이 4.3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최소값이 .78, 최대값이 1.14였다. 이 중 평균값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3개 문항과 표준편차가 .90이하로 낮

게 나타난 6개 문항을 차례로 삭제하였다. 그 후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최소값이 .47, 최대값이 .85였다. 이 중 문항-총점 간 상관이 .60이하로 낮은 5개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였고, 문항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여 .80이상으로 나타난 3개 쌍에서 문항 2개를 삭제하였다. 끝으로 상관이 .70 이상으로 높으면서 평균, 표준편차, 문항 총점 간 상관 역시 좋지 않은 문항 8개를 추가로 삭제하였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총 35개 문항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KMO의 표준 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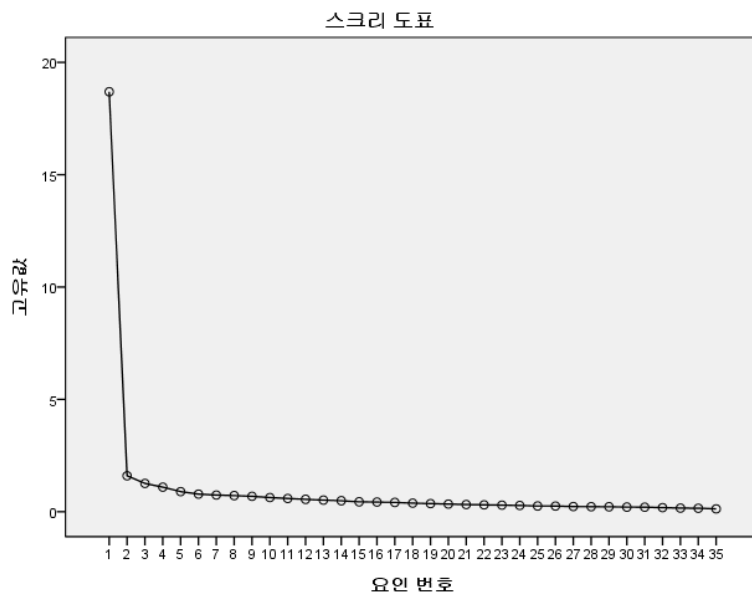


그림 2. Scree 검사

KMO=.96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의 x^2 값은 5663.356($p < .001$)으로 요인 분석이 가능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양병화, 2002). 주축요인 추출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1.0)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4개 요인이었으며, Scree도표 결과는 그림 2와 같았다. Scree도표를 볼 때 요인의 수가 두 개인 지점부터 경사가 완만해지므로 추출될 요인의 수는 두 개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부하량의 대부분이 1요인에 부하되었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요인의 수를 2개, 3개, 4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았다. 4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비척도의 3요인과 4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문항들이 나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3요인으로 다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예비척도 3요인과 4요인은 지속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예비척도의 1요인과 2요인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끝으로 2개 요인으로 요인을 지정하여 실시한 결과, 예비척도에서의 1요인과 2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예비척도에서의 3요인과 4요인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Scree도표와 2, 3, 4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요인의 수를 2개로 확정하였다.

3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의 설명된 총 변량은 55.49%였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추출하였다. 삭제 기준으로는 요인 내 부하량이 .60 이하이거나 교차 부하량의 절대값이 .30 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16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1요인과 2요인의 문항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1요인에서 요인부하량 .605인 28번 문항을 삭제하였고, 2요인에는 요

인부하량이 .595, .592인 54, 51번 두 문항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선별된 문항은 1요인 10 문항, 2요인 10문항이었고 최종적으로 1요인을 평등성/가치관 요인, 2요인은 의사소통/친밀감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2개 요인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부관계 척도 최종문항을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KMO값은 .96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의 x^2 값은 3118.216($p < .001$)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에 제시된 최종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와 같이 설명된 총 변량은 59.61%였고, 요인 간 상관은 .77($p < .01$)이었다.

최종 개발된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전체 점수와 각 하위요인 간에는 $r = .94$, $r = .95$ 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각 하위요인 상호간에는 $r = .79$ 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는 동시에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각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통해 건강한 부부관계 전체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확정된 20문항에 대해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하위요인 및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양호하게 나왔고, 평등성/가치관 요인은 .93, 의사소통/친밀성 요인은 .9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수용되는 수준이 .70(이영준, 1991)임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최종 요인분석

| 문항번호 | 문항 내용 | 요인 1 평등성/ 가치관 | 요인 2 의사소통 /친밀성 |
|---------|---|---------------------|----------------------|
| 부부관계 43 | 우리 부부는 돈의 사용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 .945 | -.239 |
| 부부관계 45 | 우리 부부는 여가활동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과 각자 따로 보내는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 | .750 | -.054 |
| 부부관계 38 | 우리 부부는 아내의 일과 남편의 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 .734 | .094 |
| 부부관계 39 | 우리 부부는 처가와 친가의 행사에 동등하게 지원하고 참석한다. | .724 | -.037 |
| 부부관계 49 | 우리 부부는 가치관(믿음, 종교, 신앙)이 같으며,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있다. | .699 | .052 |
| 부부관계 44 | 우리 부부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간다. | .681 | .211 |
| 부부관계 52 | 우리 부부는 돈이나 부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 .603 | .112 |
| 부부관계 48 | 우리 부부는 자녀 양육에 대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한다. | .588 | .217 |
| 부부관계 51 | 우리 부부는 인생의 목표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한다. | .542 | .328 |
| 부부관계 54 | 우리 부부는 공동관심사를 갖고 있다. | .536 | .298 |
| 부부관계 13 |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잘한다. | -.265 | .965 |
| 부부관계 33 | 우리 부부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칭찬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 | -.004 | .802 |
| 부부관계 19 | 우리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서로를 보고 싶어 한다. | .030 | .784 |
| 부부관계 21 | 우리 부부는 문제를 상의할 때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이해한다. | .161 | .704 |
| 부부관계 35 | 우리 부부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 | .118 | .698 |
| 부부관계 15 | 우리 부부의 성관계는 만족스럽다. | -.019 | .664 |
| 부부관계 03 |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다. | .046 | .661 |
| 부부관계 30 | 우리 부부는 서로 잘 통한다고 느낀다. | .239 | .646 |
| 부부관계 20 | 우리 부부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한다. | .161 | .637 |
| 부부관계 29 | 우리 부부는 서로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준다. | .180 | .632 |
| 설명변량 | | 54.54% | 5.07% |
| 누적변량 | | 54.54% | 59.61% |

주. 요인부하량은 사각회전을 사용한 주축 요인 추출의 패턴행렬을 통해 산출됨.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 확정된 2요인 20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한 2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

방 법

연구대상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새롭게 영남지방의 5개의 중소도시 40-60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자를 표집한 결과 대상자의 일부가 중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표집이 아니었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1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대부분의 질문을 특정 번호로 응답하였거나 표기누락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27부를 제외하였고, 부부관계를 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결혼 상태에서 이혼, 사별, 기타, 무응답을 한 14부를 추가로 제외한 376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에 대해 무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설문지 배부시에 40-60세임을 확인하고 배부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4와 같다.

측정도구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검사도구로서 평등성/가치관 요인 10문항, 의사소통/친밀성 요인이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되어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6이며 평등성/가치관 요인이 .92, 의사소통/친밀성 요인이 .94로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Diener(1984)가 행복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주관적 삶의 요소(Subjective Well-Being: SWB)’를 바탕으로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여 개발한

표 4.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N=376)

| | | | | | | | | | | | | | | | |
|-------|-------------|-----|------|--------|-----|------|-------|-----|------|---------------|---------|-------|------|------|------|
| 성별 | 남 | 160 | 42.6 | 결혼 형태 | 중매 | 95 | 25.3 | 종교 | 가톨릭 | 38 | 10.1 | 학력 | 고졸 | 42 | 11.2 |
| | 여 | 215 | 57.2 | | 연애 | 228 | 60.6 | | 개신교 | 48 | 12.8 | | 전문대졸 | 51 | 13.6 |
| 연령 | 무응답 | 1 | 0.3 | 절충 | 43 | 11.4 | 자녀수 | 불교 | 191 | 50.8 | 가구당 연수입 | 대학고졸 | 196 | 52.1 | |
| | 40대 | 260 | 69.1 | 기타 | 4 | 1.1 | | 이슬람 | 0 | 0.0 | | 대학원이상 | 84 | 22.3 | |
| | 50대 | 100 | 26.6 | 무응답 | 6 | 1.6 | | 기타 | 81 | 21.5 | | 무응답 | 3 | 0.8 | |
| | 60대 | 7 | 1.9 | 사무직 | 205 | 54.5 | | 무응답 | 18 | 4.8 | | 결혼 상태 | 초혼 | 371 | 98.7 |
| 결혼 연수 | 무응답 | 9 | 2.4 | 기술직 | 40 | 10.6 | 1명 | 61 | 16.2 | 재혼 | 5 | 1.3 | | | |
| | 10년미만 | 71 | 18.9 | 생산직 | 18 | 4.8 | 2명 | 245 | 65.2 | 2천만원미만 | 16 | 4.3 | | | |
| | 10년이상 20년이하 | 180 | 47.9 | 판매직 | 4 | 1.1 | 3명 | 55 | 14.6 | 2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84 | 22.3 | | | |
| | 21년이상 30년이하 | 102 | 27.1 | 교사(교수) | 46 | 12.2 | 4명 | 3 | 0.8 | 4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 150 | 39.9 | | | |
| | 31년이상 | 22 | 5.9 | 기타 | 57 | 15.2 | 5명 이상 | 1 | 0.3 | 6천만원이상 | 125 | 33.2 | | | |
| | 무응답 | 1 | 0.3 | 무응답 | 6 | 1.6 | 없음 | 11 | 2.9 | 무응답 | 1 | 0.3 | | | |
| | | | | | | | 무응답 | 0 | 0.0 | | | | | | |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만족 3문항, 긍정정서 3문항, 부정정서 3문항 등 3개 하위요인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7점으로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행복지수는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계산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삶의 만족 + 긍정 정서 - 부정 정서’로 계산하였다.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보고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2~.89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삶의 만족 .87, 긍정 정서 .90, 부정 정서 .83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Marlowe-Crowne(1960)가 개발한 33문항의 척도를 Reynolds(1982)가 요인분석과 문항 내적 합치도를 분석하여 13문항으로 축소하였고, 이를 박중규(2009)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진위형으로 제시되어 있고 사회적 바람직성 방향에 응답하면 1점을,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 박중규(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5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RDAS)

Spanier(1976)가 제작한 부부적응 척도(DAS), Busby 등(1995)이 만든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RDAS), Synder(1979)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 검사를 권정혜와 채규만(1998)이 재구성하여 만든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 Schumm 등(1983)이 개발한 캔사스 결혼만족도 검사(KMSS) 등 총 4개 척도를 최성일(2004)이 번역한 것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과 문항 내적 합치도 검증, 반

분신뢰도 검증을 통해 14문항을 만들었으며, 하위요인의 ‘일치도’는 ‘항상 불일치’는 1점, ‘항상 일치’는 6점으로, ‘만족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언제나 그렇다’는 6점으로, ‘응집도’의 경우 ‘전혀 함께 하지 않는다’는 1점, ‘언제나 함께 한다’는 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성일(2004)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4였고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각각 .91, .88,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0이었고,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각각 .87, .86, .88이었다.

갈등대처 척도

갈등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McCubbin, Larson과 Olson(1982)의 가족대처전략 척도와 Folkman과 Lazarus(1985)의 척도, 송말희(1990)의 척도 등을 참고하여 최규련(1994)이 작성한 갈등대처방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최규련(1994)의 갈등대처방안 척도는 남편용 척도 26문항, 부인용 척도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용 척도와 부인용 척도의 공통된 문항을 사용한 총 22문항 중 ‘외부 도움 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 및 행동표출’, ‘회피’의 5개 하위영역에서 ‘감정 및 행동표출’과 ‘회피’의 영역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 응답방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갈등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안창현(2008)의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감정 및 행동표출’이 .66이었고, ‘회피’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79,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각각 .64, .77이었다.

연구절차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2012년 10월 15일부터 일주일 간 영남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5개 영역에 거주하는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11월 9일까지 회수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20-30분 정도였다. 모든 설문참여자에게는 1,000원 상당의 참여기념품이 제공되었다.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둘째, 구인타당도를 통한 모형의 일반화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요인분석 결과를 경로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와 행복척도, 부부적응 척도, 갈등대처 척도간의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다섯째, 남편과 아내 집단을 대상으로 잠재평균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규준을 제시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총 20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한 2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증과 함께 CFI, TLI, RMSEA 등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해석에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08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로,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하였고(Brown & Cudeck, 1993)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는 .90 혹은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배병렬, 2009; 홍세희, 2007). 모형 검증 결과, χ^2 검증은 567.096(df=169), CFI .926, TLI .916, RMSEA .079로 CFI, TLI가 .90 이상이며, RMSEA의 경우에는 .080 이하로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는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의 경로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평등성/가치관요인의 요인부하량은 .60에서 .86이었고, 의사소통/친밀성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70에서 .85의 유의미한 값을 가졌다.

타당도 분석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와 행복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년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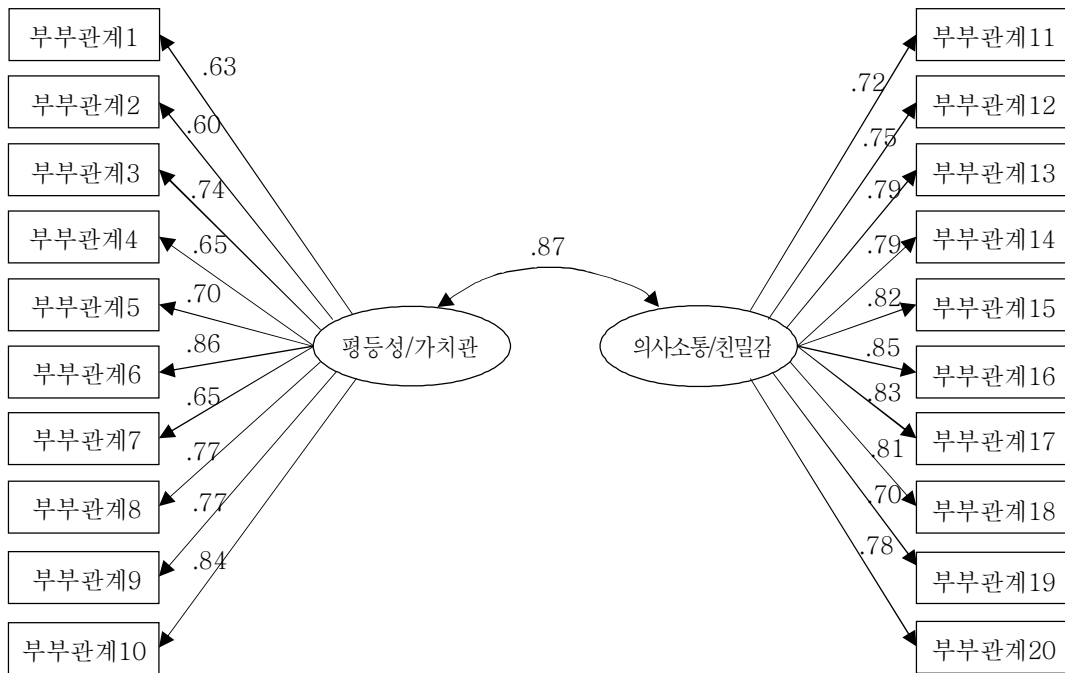


그림 3.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의 경로모형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총점은 행복지수와 정적 상관($r=.53, p<.01$)을 보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총점과 평등성/가치관 하위요인, 의사소통/친밀감 하위요인 모두는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부정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부부관계가 건강할수록 삶의 만족이 높고, 긍정정서 수준이 높으며 부정정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제공한다.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부적응 척도와 갈등대처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총점 및 하위요인들은 부부적응 척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80, p<.01$)를 보였고, 갈등대

처 척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48, p<.01$)를 보였다. 이는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적응 수준이 좋고, 갈등 상황에 있어서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부관계 척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인 부부적응 척도와 변별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표 6). 변별을 확인하기 위해 행복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부적응, 부부관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부부적응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 부부

표 5. 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인 간의 상관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1 | - | | | | | | | | | | | | | | |
| 2 | .79** | - | | | | | | | | | | | | | |
| 3 | .94** | .95** | - | | | | | | | | | | | | |
| 4 | .47** | .47** | .50** | - | | | | | | | | | | | |
| 5 | .47** | .52** | .52** | .64** | - | | | | | | | | | | |
| 6 | -.23** | -.25** | -.26** | -.36** | -.37** | - | | | | | | | | | |
| 7 | .48** | .51** | .53** | .82** | .83** | -.74** | - | | | | | | | | |
| 8 | .68** | .63** | .70** | .39** | .39** | -.15** | .38** | - | | | | | | | |
| 9 | .56** | .55** | .59** | .34** | .31** | -.26** | .38** | .49** | - | | | | | | |
| 10 | .58** | .66** | .66** | .35** | .42** | -.17** | .39** | .53** | .43** | - | | | | | |
| 11 | .75** | .76** | .80** | .45** | .47** | -.23** | .47** | .86** | .75** | .82** | - | | | | |
| 12 | -.29** | -.27** | -.30** | -.16** | -.17** | .12* | -.19** | -.24** | -.39** | -.21** | -.33** | - | | | |
| 13 | -.44** | -.45** | -.47** | -.28** | -.32** | .20** | -.34** | -.38** | -.47** | -.32** | -.47** | .43** | - | | |
| 14 | -.45** | -.46** | -.48** | -.28** | -.32** | .20** | -.33** | -.39** | -.51** | -.33** | -.49** | .70** | .94** | - | |
| 15 | -.06 | -.03 | -.05 | -.10 | -.04 | .22** | -.16** | -.06 | -.16** | -.02 | -.09 | .21** | .08 | .14** | - |

주. ** $p < .01$, * $p < .05$

* 4, 5, 6,은 행복척도의 하위요인, 8, 9, 10은 부부적응척도의 하위요인, 12, 13은 갈등대처척도의 하위요인임. 1. 평등성/가치관, 2. 의사소통/친밀감, 3. 건강한 부부관계, 4. 삶의 만족, 5. 긍정정서, 6. 부정정서, 7. 행복지수, 8. 일치도, 9. 만족도, 10. 응집도, 11. 부부적응, 12. 감정 및 행동표출, 13. 회피, 14. 갈등대처, 15. 사회적 바람직성

표 6. 행복지수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 부부적응, 부부관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D | β | R^2 | ΔR^2 |
|------|----------|-------|------|---------|-------|--------------|
| 행복지수 | 1단계 | | | | | |
| | 사회적 바람직성 | -5.00 | 1.63 | -.16 | .02 | .02** |
| | 2단계 | | | | | |
| | 사회적 바람직성 | -3.59 | 1.46 | -.11 | .23 | .21** |
| | 부부적응 | 5.47 | .54 | .46 | | |
| | 3단계 | | | | | |
| | 사회적 바람직성 | -3.94 | 1.40 | -.12 | .30 | .07** |
| | 부부적응 | 1.39 | .87 | .12 | | |
| | 건강한 부부관계 | 4.69 | .79 | .43 | | |

주. ** $p < .01$

관계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은 행복지수에 대해 2%의 설명량을 나타냈고($F=9.18, p<.01$), 2단계에서 부부적응이 21% 증가된 설명량을 나타냈으며($F=56.64, p<.001$), 3단계에서는 부부관계가 7% 증가된 설명량을 나타냈다($F=52.80, p<.001$).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바람직성, 부부적응, 건강한 부부관계 모두가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부적응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추가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부적응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연구 참여자 중 26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으로 설문을 두 번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전체 20문항의 3주간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3(p<.01)$ 로 유의미했다. 평등성/가치관은 $r=.87(p<.01)$, 의사소통/친밀성은 $r=.79(p<.01)$ 로 2개 하위요인의 검사-재검사 점수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의사소통/친밀성 보다 평등성/가치관 문항들이

더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잠재평균비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에서 남편 집단과 아내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성별에 따른 평등성/가치관 요인과 의사소통/친밀성 요인의 잠재평균의 동일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형태 동일성 검증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집단의 모형 형태가 동일한지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연구모형은 연구자의 가설인 2요인 모형으로, 경쟁모형은 1요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비교 평가는 내재모형(nest-nested model)을 비교하여 미지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적합도 지수의 상승을 비교하는 χ^2 차이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비교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χ^2 차이 검증 결과 남편 집단에서 $\Delta\chi^2(1)=98.02(p=.000)$ 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 집단에서도 $\Delta\chi^2(1)=182.084$ 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연구모형이 형태 동일성을 만족시키는 모델로 채택되었다.

둘째, 측정 동일성 검증으로는 앞서 형

표 7. 남편과 아내 집단의 형태 동일성 검증 결과

| | 모형 | χ^2 | df | TLI | CFI | RMSEA | $\Delta\chi^2$ |
|---------------|------|----------|-----|------|------|-------|----------------|
| 남편 (N=160) | 연구모형 | 379.132 | 169 | .895 | .906 | .088 | 98.020 |
| | 경쟁모형 | 477.152 | 170 | .847 | .863 | .107 | |
| 아내 (N=215) | 연구모형 | 434.774 | 169 | .907 | .917 | .086 | 182.084 |
| | 경쟁모형 | 616.858 | 170 | .844 | .860 | .111 | |

태 동일성이 성립된 모형을 기저모형(baseline model)으로 설정하고, 남편 집단과 아내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χ^2 차이 검증을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측정 동일성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배병렬, 2009). 기저모형과 남편, 아내 집단에서 각 요인계수가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기저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25.129이고, 자유도의 차이는 18로 두 모형은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측정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모형이 남편과 아내 집단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었으므로 절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절편 동일성 검증은 두 집단 사이에 요인계수가 같다고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각 측정변수의 절편도 같다고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 모형 간에 적합도를 확인함으로써 검증된다(조민아, 고은영, 서영석, 2012). 측정 동일성 모형과 절편 동일성 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를 표 8

에 제시하였다. 측정 동일성 모형과 절편 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15.206이고, 자유도의 차이는 2로 두 모형은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편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며, 연구모형이 남편과 아내 집단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집단 간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었으므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Cohen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분산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절편 동일성 모형과 비교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요인 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잠재평균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가정하여 측정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아내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표 9). 따라서 Cohen의 효과크기 값은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Cohen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 값

표 8. 남편과 아내 집단의 다집단분석 결과

| | χ^2 | df | TLI | CFI | RMSEA | $\Delta\chi^2$ |
|------------|----------|-----|------|------|-------|----------------|
| 기저모형 | 813.958 | 338 | .902 | .913 | .061 | |
| 측정동일성 모형 | 839.087 | 356 | .905 | .911 | .060 | 25.129 |
| 절편동일성 모형 | 854.293 | 358 | .903 | .909 | .061 | 15.206 |
|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 859.303 | 360 | .903 | .908 | .061 | 5.01 |

표 9. 남편과 아내 집단의 잠재평균 차이 분석

| 변인 | 남편 | 아내 | 효과크기(d) |
|----------|-------|----|---------|
| 평등성/가치관 | -.106 | 0 | -.220 |
| 의사소통/친밀성 | -.091 | 0 | -.226 |

(효과크기)이 .2 이하이면 작은 것으로, .5이면 중간 수준으로, .8 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계산 결과 평등성/가치관 요인의 잠재평균 차이는 $-.106(t=-1.35, p>.0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의사소통/친밀성 요인의 잠재평균 차이도 $-.091(t=-1.16, p>.0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평등성/가치관 요인과 의사소통/친밀성 요인에서 남녀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40-60세의 중년기 결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을 구성하였으며 1요인을 평등성·가치관요인, 2요인을 의사소통·친밀성요인으로 명명하고 총 20문항의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먼저 요인구조를 중심으로 구인타당도를 살펴보면 2개 하위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이들 2개 요인의 설명된 변량은 총 55.49%이다. 각 하위요인들은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536~.965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요인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개발된 한국인을 위한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건강한 부부관계의 구성개념이 비교적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1요인에서는 동반자적 관계와 가치관이 주로 구성되었는데 동반자적 관계가 5문항, 가치관이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리(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혼의 좋은 상태로의 유지를 ‘평등한 부부’ 관계로 의미를 부여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리고 2요인에서는 애정과 친밀감이 4문항, 의사소통이 4문항, 갈등관리가 1문항, 긍정적 관심이 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성개념 중 ‘신뢰’가 제외된 것은 당초 문항의 수가 59문항 중 5문항으로 문항수가 적었고 35번 문항 ‘우리부부는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한다’와 30번 문항 ‘우리부부는 서로 잘 통한다고 느낀다’와 같은 의사소통 문항이 신뢰 부분을 공통적으로 측정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개발된 척도가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이 .79~.96으로 나타나 개발된 척도가 신뢰로운 도구임을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행복지수, 긍정정서와는 정적 상관, 부정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여주어 부부관계가 건강할수록 행복의 수준과 긍정정서 수준이 높으며, 부정정서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이론적 근거에 따라 밝혀진 관련된 변인들과의 적절한 상관이 있을 경우 구인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수백(2009)의 연구에 따라 구인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적응 척도와 갈등대처 척도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부적응 척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갈등대처 척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로써

건강한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부부적응 수준이 높고 갈등상황에서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하거나 회피하는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박영화와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를 비교하였을 때 부부간 갈등의 크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부적응척도와 변별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복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부적응, 부부관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 부부적응, 건강한 부부관계 모두가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부적응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추가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부적응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개발된 척도는 20문항으로 기존의 부부·결혼 관련 척도들에 비해 문항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롭고 양호한 타당도를 보이고 있다. 본 척도의 경우 대상자가 40-60세의 연령으로 일부 응답자의 경우에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노안으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어 20문항의 간략한 척도는 응답자의 편의성과 신뢰성과 척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남편 집단과 아내 집단 간의 개발된 척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확보하여 잠재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김현리(2000)의 연구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부부조화 점수가 높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부부관계 잠재평균에 차이가 없으며 개발된 척도가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척도의 검사점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백분위점수와 표준점수 등을 통하여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 2.95~4.60의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중년기 부부를 위해 개발된 척도의 강점을 살펴보면, 첫째, 부부관계의 긍정적 면을 측정했다는 점이다. 이 척도를 통하여 부부간의 기능적, 긍정적 및 건강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부부관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부관계에 대한 배우자 한 쪽의 입장에서 본 주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상호작용적인 관점(박태영, 1996)에서 보았다는 것이다. 부부관계는 부부 중 한 쪽 배우자만의 만족이나 행복감, 건강성으로는 건강한 부부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한 쪽 배우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이기적인 만족일 가능성도 있다. 또,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관계에서의 역동성을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측정도구를 이용해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구성개념을 고루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척도의 문항에는 의사소통, 갈등관리, 동반자적 관계, 긍정적 관심, 가치관, 신뢰, 애정 등의

건강한 부부관계의 7가지 개념이 고루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본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건강한 부부관계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성별의 잠재평균 비교결과 남녀가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므로 척도의 신뢰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남녀를 동일집단으로 보고 구별 없이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성별 응답의 결과가 남녀 동일하게 측정됨으로 남과 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년기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년기 부부관계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결혼의 성공여부에 어떤 요인이 기여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부부관계의 건강성과 관련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적용될 것이다. 둘째, 부부집단프로그램, 부부교육, 그리고 부부상담의 실제에 사용되어 상담의 결과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심리학과 상담학 분야에서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심리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상담과정이나 부부프로그램, 혹은 부부교육에서 대상자의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강점에 초점을 두어 부부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영남지역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삶에서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자신의 자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본 척도의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 놓인 표집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표집의 연구를 제안한다. 둘

째, 척도 문항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항이 속해있음을 볼 때 자녀가 없는 부부를 건강하지 않은 부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부부관계에서 문제를 다루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속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 공동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행복지수를 그 척도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관계의 특징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개발된 척도는 남녀에게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은 있으나 중년기 이외의 대상에 대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대별 측정 동등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건강한 부부집단과 그 반대의 속성을 가진 집단 간의 차이 비교 또한 후속연구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혜경 (2008). 기혼부부의 결혼 만족도, 이혼 고려 정도 및 이혼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한국가족학회)*, 20(4), 1-34.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5-51.
- 김경진 (2011).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환 (1967). 이혼에 영향적인 심리적 변인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 5-8.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이론*. 서울: 학지사.

- 김미숙 (1990).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 김성봉 (2012). 문제행동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통합적 접근.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현 (1985). 부부갈등과 치료적 개입. *성심생활(성심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4, 3-18.
- 김순옥 (2001).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37-157.
- 김영자 (1999). 중년기 부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혜 (1994). 의사소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리 (2000). 부부조화 측정 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신 (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숙 (2006). 갈등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마양호 (2008). 근로자 부부관계 건강성의 정도가 작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옥임 (1996).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갈등과 해소방안에 관한 고찰. *과학과 교육*, 4, 189-202.
- 박중규 (2009). 청소년 대상 단축형 13문항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29-439.
- 박태영 (1996). 재미유학생 부부문제에 대한 상호작용적 가족치료의 적용.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 29-51.
- 박형석 (2000). 중년기 부부위기 극복에 관한 목회적 제언.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청람.
- 백승순 (2001). 기독교인 중년부부를 위한 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송정아 (1995). 한국 도시 부부의 건강한 결혼 관련 변인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69-77.
- 송하길 (2004).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위한 기독교적 상담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 (2002).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 신외숙 (2002).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창현 (2008).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병화 (2002).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마케팅, 사회 및 행동과학을 위한 SPSS for Window 100%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윤선 (1997). 중년기 위기에 대한 예방과 기독교 상담. *일립논총(한국 성서대학교)*, 5,

- 69-92.
- 오종희 (2008). 성의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5(1), 137-158.
- 옥선화 (200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생활만족도와 건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12), 167-187.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79-705.
- 이근후 (1990). 사회적응을 위한 인간관계. 서울: 하나의학사.
- 이동숙 (2006). 중년기 부부성장 집단 프로그램.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준 (1991). 다변량 분석. 서울: 석정.
- 이윤로, 유시순 (2004). 노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1), 1-21.
- 이은아 (2006).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0(1).
- 이잠숙 (2010). 중년기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알 집단상담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숙, 유영주 (1998). 부부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Baucom과 Epstein의 인지행동적 치료모델에 기초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6 - 71.
- 이화자, 최연실 (2003). 중년기 부부관계증진(enrichment)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Satir 가족치료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2), 49-76.
- 이희백 (2009). 중년기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아내의 관점에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77-88.
- 장병옥 (1997).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상희 (1988). 도시 중년주부의 역할부재와 아노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1), 1061-1089.
- 전명숙 (1986). 중년기 가정의 부부생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오, 변상해 (2009). 중년기 부부갈등을 대처하는 성격적 부부 치유 프로그램. 복음과 실천신학, 19.
- 정현숙 (2001). “디지털 시대, 협공 받는 중년기 가족”, 디지털 시대, 중년기 가족의 가정관리 전략. 제30차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
- 조민아, 고은영, 서영석 (2012). 잠재평균 분석을 활용한 학업태도 차이 검증: 대학생 미성취 집단과 보통 이상 성취 집단 간 비교. 청소년학연구, 19(2), 55-77.
- 진선영 (2004). 역기능 가정 속에서 성장한 중년기 부부갈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성일 (2004). 개정판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고향논집(경희대학교), 35, 97-114.
- 최영민 (2010). 결혼 행복감의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9, 85-113.
- 최윤화 (2000).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

- 국아동교육학회지: 아동교육, 9(2), 13-25.
- 최은석 (2004). 청소년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PedsQL™ 4.0 Generic core Scale)의 타당도·신뢰도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은희 (1993).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 가정학연구(관동대학교), 11, 61-74.
- 한국경제 매거진 (2012). http://magazine.hankyung.com/busnews?popup=0&nid=01&c1=1004&nkey=2012043000856000371&mode=sub_view.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순진 (2006). 건강한 부부의 특징: 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정의 (2008). 중년위기 부부의 갈등과 성격적 상담. 한국성경적 상담학회, 8, 1-18.
- Barlett-Lennard, G. T. (1991). *Relationship inventory-form ws-64*. Unpublished.
- Bienvenu, M.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Family Coordination*, 19(1), 26-31.
- Christensen, A., & Sull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Unpublished questionnaire, University of California, LA.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4, 349-454.
- Hoff, F. V. (2004). 김영중 역. 희망을 거래한다. 서울: 서해문집.
- Gottman, J. M. (1994).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Y: Simon & Schuster.
- Gottman, J. M. (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Y: W.W. Norton.
- Gottman, J. M. (2002) 임주현 역.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서울: 문학사상사.
- Keyes, C. L. M., & Ryff, C. D. (1999).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In S. L. Willis & J. D. Reid (Eds.), *Life in the middle: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in middle age*, 161-18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oore, K. A., Jekielek, S. M., BronteTinkew, J., Gozman, L., Rhan, S., Redd, Z.(2004). *What is "Healthy marriage"? Defining the Concept*. Washington, D. C., *Child Trend*.
- Newman, Barbara M. & Newman, Philip R. (2006).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 442-443.
- Rauer, A. J. (2006). *Identifying happy, healthy marriage for men, women and children*. University of Michigan.
- Robles, T. F., & Kiecolt-Glaser, J. K. (2003). The physiology of marriage: Pathway to health. *Physiology and behavior*, 79, 409-416.

1차원고접수 : 2013. 09. 30.

수정원고접수 : 2013. 12. 17.

최종게재결정 : 2013. 12. 24.

Development of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of Middle-aged Korean Couples

Kim Nam-Yeon

Yang Nan-M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scale in middle age. First of all, it analyzed documentary consideration, couple-interview data, and couple-related scales and then prepared 104 basic preliminary questions. Next, experts including a professor of psychology, a professor of social welfare, a doctor of psychology, and a teacher of Korean language validate the contents of the basic preliminary items over 4 times, thereby have developed 59 items of the preliminary scal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targeting 223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middle age with the developed preliminary scale. As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2 factors were confirmed: 10 items for equality/value factor and 10 items for communication/intimacy factor. As the result of carrying ou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final healthy marital-relationship scale in middle age, a model of 2 factors was confirmed to be suitable.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tive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the correlation with COMOSWB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Dyadic Adjustment Scale, and Conflict Coping Scale. Finally,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Intimacy, Equality, Value*